

■ ‘시인이 된 목수’ 송현승씨, 이번엔 소설가 변신

“스토리 구상하다 망치로 손 많이 찜였죠”

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학년 재학

문예연구 신인문학작품 소설부문 ‘달’ 수상

마흔이 다 돼 시(詩)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간 목수가 소설가로 등단했다.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송현승(42)씨가 최근 문예지 ‘문예연구’가 주최하는 제43회 신인문학작품 소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것. 수상작 ‘달’은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목수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이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 등단

대학에 들어온 뒤 송씨는 소설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첫 소설을 읽어본 교수는 “많이 써 본 실력”이라며 송씨에게 대필 의뢰를 던지기도 했다. 송씨의 시인 등단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의심을 거뒀다고 한다.

쉽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혼자 끄떡대지 말고 대학에서 제대로 배워보라고 등을 떠민 것도 큰 힘이 됐죠.”

목수와 소설가란 어울리지 않는 두 직업은 송씨에게 어떤 의미일까. 목수 일은 송씨의 생계를

“꼭 찬 느낌의 소설 쓰고파”

위해 필요한 것이고, 소설 쓰는 일은 “뭔가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은 응어리를 풀기 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로또에 맞는다면 목수 일은 안 하겠지만, 소설은 쓸 것”이라는 것이 송씨의 설명이다.

두 직업을 병행하느라 생긴 에피소드도 많다. 새벽까지 소설을 쓰고 잠들어 다음 날 일을 백먹는 가 하면, 공사 현장에서 소설 소재나 시상을 떠올리다 자잘한 사고도 일었다. 못질 하다 판 생각을 하는 바람에 망치로 손을 찌는 일은 다반사였다.

그래서인지 소설의 소재도 아직은 목수와 관련한 것들이 많다. 이번 수상작이 그랬고, 지난해 광주일보 신춘문에 응모해 최종심까지 올랐던 소설도 마찬가지로. 현재 집필 중인 장편 소설은 부산에서 만났던 목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0년 넘게 목수 일을 했지만 역시 전업작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송씨는 “지역 신문이나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경우는 한계가 있지만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라며 “독자가 글을 읽은 뒤 머리 속에 뭔가 꼭 찬 느낌을 주는 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빛고를 열린 팝콘서트-클래식 앤 팝스’

광주문예회관 17일 오후 7시

클래식과 대중 음악이 어우러진 편안한 음악회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광주문예회관은 특별 기획공연으로 ‘빛고를 열린 팝콘서트-클래식 앤 팝스’를 준비, 17일 오후 7시 대극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서울아트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역임한 최선용씨를 초청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영화 ‘라이언 킹’,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삽입곡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3인조 여성그룹 씨아가 출연해 ‘사랑의 인사’ ‘미친 사랑의 노래’ ‘구두’ 등 히트곡을 들려준다.

또 소프라노 김진희, 바리톤 김기보, 바이올린의 김윤희, 오보에의 송진홍이 ‘팬 오브 라만차’ 중 ‘이룰 수 없는 꿈’과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푸리치오 작품 28’, 엔리모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을 들려준다.

티켓 2만원, 1만 5천원, 1만원. 수습시험 수험표 지참자와 회관 정기 회원에게는 2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62-510-92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인조 여성그룹 ‘씨아’

구 천 신임 광주시립합창단장

“시민 사랑받는 합창단 만들겠다”

광주시는 공석 중이던 광주시립합창단 신임 단장으로 구 천(48) 전국립합창단 연합회장을 위촉했다.

총신대 교회음악과와 한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구 신임 단장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 썬더 세션을 수료했다.

국립합창단에서 활동하기도 한 구 신임 단장은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주시립합창단 지휘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합창연합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는 2009년 11월까지 2년간 재직하게 될 구 신임 단장은 “문화수



도인 광주시립합창단의 책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쌓은 음악적 경험을 토대로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합창단,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적 풍경 + 인공적 사물’ 색다른 영상미

사진작가 이정록씨 작품전 15~21일 신세계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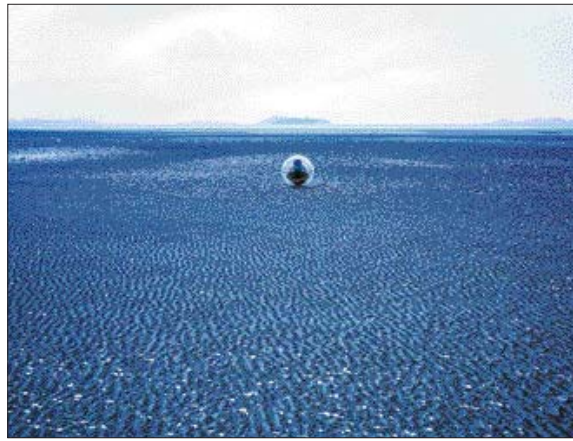
사진작가 이정록씨의 작품에는 평범한 풍경이 없다. 그는 자신만의 영감을 영상에 담아내기 위해 현장에서 설치 작업을 한 뒤 그 풍경을 필름에 수록한다.

이런 작업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포착함과 동시에 자신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정록씨가 ‘The Mythic Scape- 신화적 풍경’을 주제로 15~21일까지 신세계 갤러리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제9회 광주신세계 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씨를 위해 마련된 초대전이다.

그 동안 한국적인 풍경을 앵글에 담은 그는 땅(밭), 갯벌, 고인돌이 놓인 대지, 대나무 숲 등지에 인공적인 사물을 배치해 색다른 영상미를 선보인다.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거쳐 홍익대 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한 뒤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R.I.T) 영상예술대학원에서 순수사진을 전공했다. 광주대, 조선



‘Mythic Scape2’

대, 홍익대학교에 출강중이다. 062-360-163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립국악단 정기공연

17일 목포시민문화센터

전남도립국악단의 2007 정기공연이 17일 오후 7시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성공의 열의를 담아 ‘2007 Good 축제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 국악기가 빛나는 아름다운 관현악 연주와 함께 B-boy가 참여하는 박진감 넘치는 리듬의 창작음악, 국악영재의 산실인 어린이국악단의 가야금 병창, 도깨비국악 흥부전을 현대물로 극화한 퓨전 뮤지컬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1988년 창단된 전남도립국악단은 그동안 1천600여 회의 국내외 공연을 통해 남도국악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덕수패 사물놀이 한마당

16일 오후 7시30분 무안 승달문화회관

‘사물놀이’ 창시자로 올해 예인(藝人) 인생 50년을 맞는 김덕수(사진)가 이끄는 ‘김덕수패 사물놀이 한마당’이 16일 오후 7시30분 무안 승달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사)한국매세나협회의 ‘찾아가는 메세나’ 프로그램인 ‘사랑이 꽃피는 콘서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토지공사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1978년 남사당의 풍물을 ‘사물놀이’로 새롭게 만든 김덕수는 우리 민족의 소리와 흥을 세대와 인종의 벽을 넘어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앞반, 선반 등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을 만끽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안선 속의 금속공연전

오늘부터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낙준)은 15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신안선 속의 금속공연’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1976년 해저에서 발굴된 신안선에 실려있던 금속공예 작품 등 150여점이 집중 조명된다. 동아시아 공예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특별전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 제주박물관에서 대여한 금제 동전, 개구리 모양 연적 등 금속 공예품이 선보인다.

특별전 기간인 24일에는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도 열린다. 문의 061-270-200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무등극장	제일시네마
www.megabox.co.kr	www.entercinema.co.kr	www.joyco.com / 1588-7941	www.cinusa.co.kr / 1544-0070	www.mo12.co.kr / 1588-9101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구.런던대극사거리 ☞예매1544-0600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앞편)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충장로 1가 ☞ 232-9106	충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베오울프 (12세) 2관 세븐데이즈 (18세) 3관 색, 계 (18세) 4관 마을금고 연쇄 습격사건 (15세) 5관 식객 (12세) 6관 바르게살자 (15세) / 스카우트 (12세) 7관 베오울프 (15세) 8관 9관 스카우트 (12세)	1관 블랙 달리아 (18세) 2관 킹덤 (18세) 3관 스카우트 (12세) 4관 궁녀 (18세) / 바르게살자 (15세) 5관 식객 (12세) 6관 세브란스 (18세) 7관 베오울프 (15세)	1관 스카우트 (12세) 2관 바르게 살자 (15세) 3관 베오울프 (15세) 4관 베오울프 (15세) 5관 색, 계 (18세) 6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5세) 7관 더버터플라이 (15세) / 세븐데이즈 (18세) 8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 9관 식객 (12세) 10관 세븐데이즈 (18세)	1관 스카우트 (12세) 2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5세) 3관 식객 (12세) 4관 바르게살자 (15세) / 더버터플라이 (15세) 5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 6관 베오울프 (15세) 7관 세븐데이즈 (18세)	1관 궁녀 (18세) 2관 바르게 살자 (15세) 3관 베오울프 (15세) 4관 스카우트 (12세) 5관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5세) 6관 식객 (12세) 7관 더버터플라이 (15세) / 로스트 라이언즈 (15세) 8관 색, 계 (18세) 9관 세븐데이즈 (18세)	1관 식객 (12세) 2관 세븐데이즈 (18세) 3관 마을금고 연쇄습격사건 (15세) 4관 스카우트 (12세) 5관 색, 계 (18세) 6관 바르게살자 (15세) / 로스트라이언즈 (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다이 합인인 종료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워너-옥외 주차장 300대★ ★ 빛고를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호남 최대 주차장 • 예매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점 (10시) 잠깐! 상영중 성경전역종 방영 (11시~12시) - 1년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녹차 사무니(오르차-개배사) ARS 전화예매 1544-0070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팝콘스 해안민물 천용후구미엔 • 편의예매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베오울프	스카우트	마을금고 습격사건	베오울프	세븐데이즈	로스트라이언즈